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일본 생보사, 변액연금 판매 전략 재검토

-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증시 급락으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변액연금보험의 운용실적이 악화되자 보험회사 및 은행들은 변액연금 중심의 판매 전략을 잇따라 수정하고 있음.
- 2002년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된 이후 은퇴 생활 자금으로 각광을 받으며 큰 폭의 매출 신장을 보여온 변액연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운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급격한 판매 하락을 보이고 있음.
 - 최근 아크사생명은 변액연금 판매로 급성장한 방카슈랑스 전업사인 아크사파이낸셜생명을 연내에 흡수·합병한다고 발표하였는데,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모기업인 아크사생명보험이 변액연금 중심의 아크사파이낸셜생명의 비즈니스 모델에 한계를 느끼고 상품의 다양화 등 판매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음.
 - 방카슈랑스 판매 주체인 은행들 역시 주가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연금 운용 실적 악화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변액연금 판매를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임.
-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변액연금 판매로 일본 보험업계에 자리잡은 대부분의 외국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존의 변액연금 판매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, 일부 보험회사는 오히려 변액연금 판매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짐.
- 변액연금 판매 1위인 미국의 하트포드생명은 상품의 90% 이상이 원금손실에 가까울 만큼 운용실적이 악화되자 전면적인 상품 재검토 작업에 들어감.
 - 또한 최대 1조엔에 달하는 비핵심 사업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네덜란드의 ING 그룹도 일본 변액연금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생명보험 사업을 매각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음.
 - 그러나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현재 어려움만 극복하면 변액연금 수요가 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, 작년에 파산한 야마토생명을 변액연금을 주력으로 하는 방카슈랑스 전업사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알려짐.

(FujiSankei Business | 4/21)